

‘뮌헨 흑사의 아이콘’ 김민재, 과부하 걱정되네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축구 대표팀 손흥민(왼쪽)과 김민재가 찍짓기 놀이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뮌헨 17경기 풀타임에 A매치 등 강행군...독일 매체도 걱정스러운 시선 싱가포르전 앞둔 클린스만 “휴식 보다는 A매치 연속 출전이 더 좋을 것”

“훈련만 하는 것보다, A매치 5경기 연속 출전하는 게 선수에게 더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철기둥’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둘러싼 ‘흑사 논란’을 우려한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김민재는 한국 축구가 보유한 ‘역대 최고’의 센터백이다. 유럽 빅리그인 분데스리가의 명문, 뮌헨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김민재를 두고 너무 흑사당하는 게 아니냐는 독일 매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민재는 2023-20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는 물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와 컵 대회까지 뮌헨이 소화한 18경기 가운데 17경기(정규리그 11경기·UCL 4경기·포칼 1경기·슈퍼컵 1경기)를 대부분 풀타임 출전했고, 태극마크를 달고 9~10월에 걸쳐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

쳤다. 김민재의 엄청난 출전 시간에 독일 매체 스포르트1도 14일(현지시간) “얼마나 지속될까”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였다. 스포르트1은 “김민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에서 쉴 수 있는 총 990분(11경기) 가운데 959분을 뛰었다. 그리고 UCL 4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다”라며 “분데스리가의 A매치 휴식기에도 회복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전했다. 최근 김민재를 두고 패스 실수가 잦아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휴식하지 못한 탓이라는 게 일부 독일 매체의 주장이다. 한국은 이번 11월 A매치 기간에 차례로 싱가포르, 중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 2차전을 치른다. 홈에서 치르는 싱가포르전은 상대 수준 등을 고

려할 때 부담이 적은 경기인 만큼, 김민재를 쉬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싱가포르전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를 쉬게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은 “월드컵 예선은 선수들이 무조건 뛰고 싶어하는 경기다. 김민재는 쉬기를 원하지 않고 뛰기를 원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김민재는 12, 13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피로했겠지만, 첫날 30분간 가볍게 훈련해 컨디션 회복이 잘 됐을 것이다. 이제 경기를 펼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 “오늘 김민재가 환하게 웃길 때 물어보니 생일이라더라”고 전하면서 “오늘 훈련 마치면 생일 케이크를 주려고 한다”며 웃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의 첫 상대인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절대 약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도 세트피스, 역습으로 득점할 수 있는 팀”이라며 경계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는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기세 꺾인 토트넘, EPL 우승 확률 ‘0.3%’

축구 기록·통계 전문 매체 전망 디펜딩 챔프 맨시티는 84.6%

8승 2무로 고공행진하다 최근 기세가 꺾인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유력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축구 기록·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의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확률은 0.3%로 나타났다. 옵타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4위(24.6%)나 5위(21.4%)로 마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6위(17.8%)나 7위(9.8%)까지 떨어질 확률도 낮지 않았다. 이는 옵타가 보유한 슈퍼컴퓨터가 남은 시즌 일

정에 대한 1만회가량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놓은 결론이다. 압도적으로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로, 무려 84.6%의 확률로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봤다. 맨시티가 4위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0.4% 미만으로, 토트넘의 우승 확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풀과 아스널이 각각 9.1%·5.6%로 우승 확률 2·3위를 차지했다. 올여름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출범한 토트넘은 개막 10경기에서 8승 2무를 달리며 구단 사상 첫 EPL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11라운드 첼시와 홈 경기에서 수적 열세 끝에 1-4로 대패하더니 직전인 울버햄프턴과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1-0으로 앞서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내주며 충격적인 역전패까지 당했다. 주축인 제임스 매디슨, 미키 판터펜 등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악재도 가득하다. 8승 2무 2패가 된 토트넘(승점 26)은 맨시티(9승 1무 2패·승점 28), 리버풀·아스널(이상 8승 3무 1패·승점 27)에 밀려 4위로 처졌다. 한편 벌써 5패째를 당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7승·승점 21·6위)는 우승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타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 미래는 맨유가 7위나 8위(이상 16.3%)로 시즌을 마치는 시나리오다. 옵타는 맨유가 10위(10.2%), 11위(7.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맨유가 4위 안에 입성할 확률은 15.3%에 그쳤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연말 세계 1위 확정에 방심했다

점전 끝 신네르에 1-2 패배

통산 8번째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사진)가 시즌 마지막 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다. 조코비치는 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니토 ATP 파이널스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그린 그룹 2차전에서 안니코 신네르(4위·이탈리아)에게 1-2(5-7·7-6(7-5) 6-7(2-7))로 졌다. 이를 전흘게 루네(8위·덴마크)와도 3시간 5분 점전 끝에 2-1(7-6(7-4) 6-7(1-7) 6-3)로 승리한 조코비치는 이날은 3시간 10분간 싸웠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조코비치는 1차전에서 루네를 꺾고 올해 연말 세계 1위를 확정, 개인 통산 8번째 연말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01년생인 홈 코트의 신네르는 조코비치를 상대로 3전 전패를 당하다가 처음으로 맞대결 승리를 거뒀다. 이 대회는 세계 랭킹 상위 8명이 출전해 조별리그 후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시즌 최종전이다.



그린 그룹은 조코비치와 신네르, 루네, 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열린 루네와 차치파스의 경기에서는 1세트 도중 차치파스가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다. 차치파스가 남은 경기 출전을 포기하면서 후베르트 후르카치(9위·폴란드)가 조코비치의 3차전 상대로 대신 나선다. 그린 그룹에서는 신네르가 2승, 조코비치와 루네가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에 오를 선수가 정해진다. 레드 그룹에는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 다니엘 메드베데프(3위), 안드레이 루블료프(5위·이상 러시아),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가 경쟁한다. /연합뉴스

18~26일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수능 스트레스 날려요

광주 중·고생 90여명 참가 축구·농구 종목서 기량 겨뤄

광주지역 학생들이 수능을 끝낸 뒤 후련한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2023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을 매주 주말 연다”고 15일 밝혔다. 대항전에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9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시축구협회, 광주시농구협회 주관으로 각각 서구 보라매축구공원,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축구와 농구 종목이 진행된다. 이번 대항전은 학교별로 경기를 펼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학교 구분 없이 참가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팀을 결성한 90여명의 학생들은 대항전을 통해 쌓였던 학업스트레스를 풀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팀을 결성하면서 개성 넘치는 팀명도 돋보인다. ‘빛고을FC’, ‘낭만FC’ 등 중·고등부 각각 24팀이 축구대항전에 참가하며, 농구 대항전에는 ‘수



지난해 열린 광주광역시 청소년 클럽대항전 농구경기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능골’, ‘주행이와아이들’을 비롯한 중·고등부 각각 12팀이 출전한다. 16일 수능이 끝나고 이틀 뒤인 18일에 대항전이 시작되는 만큼, 특히 고등부 3학년 참가자들은 입시 부담감을 털고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활기를 얻어가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의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형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 4관 형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톡 투 미
- 5관 더 마블스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톡 투 미
- 9관 여귀고- 저주를 부르는 게임, 금의 나라 물의 나라
- 7관 싸이퍼들: 소년들, 뉴 노멀
- 8관 싸이퍼들: 더 마블스, 프레디의 피자 가게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5